

“스웨덴전 4백? 3백? ... 베스트 11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신태용 감독, 전력 노출 꺼려 수비 전술 공개 안해 ... 어떤 경우든 장현수·김영권은 중책



FIFA WORLD CUP RUSSIA 2018

“포지션은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까지 힘들게 준비했던 부분이라 경기장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 23명의 선수 중에서 11명은 무조건 나온다는 것만 말하겠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베이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한 후 처음 담금질했던 13일(현지 시간) 스웨덴과 월드컵 조별 리그 첫 경기에서 수비 형태를 스리백과 포백 중 어떤 걸 가동할지를 묻는 말에 ‘동문서답’식 대답을 했다.

누가 나오더라도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베스트 11이 꾸러지는 건 분명하다.

신 감독으로서 지금까지 월드컵 첫 상대인 스웨덴에 전력 노출을 꺼려 전술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던 만큼 취약 포지션인 수비진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는 건 당연지사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마지막 날에 진행했던 세네갈과 평가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취재진에 ‘포메이션(전형)에 대해선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 감독이 조별 리그 세 경기 중 모든 걸 걸겠다고 밝힌 스웨덴전에 포백 또는 스리백 중 어떤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비진의 선발로 장현수(FC코)와 김영권(광주) 듀오의 선발 출격은 유력해 보인다.

장현수는 신태용 감독이 작년 7월 사령탑으로 취임한 후 최다 출전시간을 자랑한다. 신태용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김영권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불박이 중앙수비수 김민재(전북)의 공백을 메울 대체자로 떠올랐다.

장현수와 김영권은 오스트리아 전후 기간 치른 7일 불가리아전과 11일 세네갈전 등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수비수 파트너로 선발 출전했다.

신 감독이 “두 차례 평가전부터 수비진을 고정해 월드컵 본선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힌 데는 틀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측면 수비수로는 왼쪽에 박주호(울산) 또는 김민우(상주)가 나설 수 있고, 오른쪽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이용(전북)이 고정적이다.

스웨덴, 한국 캠프 훔쳐봤다

‘스파이’ 파견 인근 건물서 모든 훈련 과정 기록

스웨덴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사전 전지훈련 캠프에 ‘스파이’를 파견해 비공개 훈련의 모든 정보를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한 취재진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스웨덴 축구대표팀 스카우트 라르스 야콥손은 스웨덴 취재진에게 한국 대표팀 전력 분석 과정을 공개했다”며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전캠프였던 오스트리아 레오강을 찾아 훈련 모든 과정을 분석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취재진에 따르면 라르스 야콥손 스카우트의 염탐 과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그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훈련장이었던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 인근 건물을 아지트로 삼았다.

야콥손 스카우트는 해당 장소에서 훈련장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며 한국 대표팀의 훈련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스웨덴 취재진에 “건물주에게 장소 사용을 허락받았으며, 한국 대표팀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대비 집중 훈련을 소화했다.

베이캠프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담금질을 한 것인데, 당시 대표팀은 전술훈련과 세트피스 훈련 등의 과정을 국내 취재진에도 꼭꼭 숨겼다.

하지만 스웨덴이 모든 정보를 빼가면서 결과적으로 ‘비공개 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스파이까지 파견한 스웨덴은 겉으로는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없다며 ‘연말작전’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23명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 선수의 비장한 각오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KIA ‘비상’ 발목 잡는 ‘부상’

김선빈 사구에 갈비뼈 골절 재활군으로 ... 마운드는 피로 싸움



KIA는 14일 SK와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주전 유격수 김선빈을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전날 사(死) 구에 따른 엔트리 변경이다.

김선빈은 13일 SK전 2회말 1사 1·2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클리의 공에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 자리에 주저앉았던 김선빈은 주자로 나가 주루까지 소화했지만, 4회초 수비 때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최원준과 교체됐다.

이후 정밀 검진을 받은 김선빈은 갈비뼈 미세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재활군으로 내려가게 됐다.

KIA는 이날 김선빈과 함께 최근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포수 한승택을 내리고 외야수 나지완과 포수 백용환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1군으로 돌아온 두 선수도 부상 영향을 받았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전력이 있는 백용환은 지난 5월 25일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검진 결과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백용환은 지난 8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1군 재진입을 노려왔다. 나지완도 ‘사구’ 후유증이 문제가 됐다. 나지완(196타석)은 13일 현재 13개의

공에 맞으면서 SK 최정(274타석)과 함께 사구 공동 1위에 올라있다. 타석수를 생각하면 나지완이 원치 않은 1위다.

특히 나지완은 5월 29일부터 진행된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홈 6연전 중 5경기에 나와 두 개의 사구를 추가했다. 여기에 비디오 판독 오심에 따라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구도 있었다. 이 기록되지 않은 사구가 결정타가 됐다.

잡은 사구로 인한 타격 기록 속 손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나지완은 결국 지난 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역시 재활군에서 호흡을 골랐던 나지완은 퓨처스리그 4경기에서 나와 11타수 5안타(타율 0.455)로 감을 잡은 뒤 1군으로 돌아왔다.

‘사구’가 KIA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야수진의 부상 원인 1위다.

올 시즌 사구로 인한 미세 골절만 벌써 세 번째다. 4월 6일에는 이범호가 넥센 히

어로즈 최원태의 공에 맞아 우측 중수골 미세 골절 부상을 당했고, 4월 19일에는 LG 트윈스 윌슨과의 대결에서 안치홍이 좌측 손가락 중절골 미세 골절이 되면서 자리를 비워야 했다.

내야의 핵심 자원이었던 이범호가 사구로 자리를 비우면서 KIA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게 됐다.

마운드는 ‘피로’와의 싸움 양상이다. 시즌 초반 집중력 떨어진 타선 탓에 부담이 많았던 마운드에 이번에는 ‘변칙 운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민이 선발로 투입되면서 4·5선발로 역할을 하던 임기영과 한승혁이 불펜으로 걸음을 하고 있다.

임기영의 보직이 톱릴리프 겸 필드조로 정리된 가운데 로테이션상 16일 선발로 예정된 한승혁이 지난 2·3일에 이어 14일에도 불펜으로 걸음을 했다.

야수진의 사구와의 싸움 속, 더위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기 전에 마운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헥터·안치홍 ‘5월의 감독상’

KIA 타이거즈 투수 헥터와 내야수 안치홍이 5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이달의 감독상’에 선정돼 지난 13일 광주 SK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Kysco 김원범 대표가 했고, 헥터는 5월 중 6경기에 선발 등판해 38.2이닝 동안 30개의 탈삼진을 숙여내며, 3.26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을 거뒀다. 특히 1차레 완투 경기도 펼치는 등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치홍은 5월 중 25경기에서 나와 97타수 38안타(4홈런) 23타점 21득점 타율 0.392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날 시상식은 Kysco 김원범 대표가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김여울 기자 wool@kr

열흘만의 등판 유승철 “불펜에선 연투했죠”

덕아웃 T 특독

▲불펜에서는 연투했죠=대위전보다 떨렸던 유승철의 복귀전(?)이었다. KIA 불펜의 막내 유승철은 지난 13일 SK와의 경기에서 2.1이닝 2피안타 1볼넷 1탈삼진을 기록했다. 14일 유승철은 전날 등판에 대해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긴장했다”고 언급했다. 유승철은 팀의 긴박한 마운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30일 등판 이후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경기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불펜에서 연투했

다”며 웃은 유승철은 “최근에 감이 안 좋았는데 밸런스 좋아지는 타이밍에 경기에 나가서 다행이다. 오랜만이라 변화구가 좋지는 않았다. 많이 긴장했는데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끝내기 안타로 쳐주세요=안타를 쳐야 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은 외야수 박준태. KIA는 지난 13일 SK와의 경기에서 4-5로 뒤진 9회말 끝내기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최원준의 볼넷을 시작으로 김민식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그리고 최정민의 대타로 타석에 박준태가 섰다. 박준태는 주심의 아쉬운 볼 판정 속에서

도 볼넷을 얻어내면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어 “끝내기 안타를 친 경험에 있는 나?”는 질문에 “끝내기 실책으로 이긴 적은 있다. 끝내기 안타로 쳐주라”면서 웃었다. 지난 2014년 7월 12일 롯데와의 경기. 4-4로 맞선 연장 12회말 1사 2루에서 대타로 나온 박준태가 최대성을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려냈다. 2루에 있던 주자 김민우가 3루까지 향했고, 우익수 손아섭의 송구가 포수 키를 넘기자 홈까지 파고 들면서 5-4를 만들었다. 기록은 끝내기 실책으로 남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